

##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 중화민국 연변뇌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학교실†  
박영숙\*\* · 표미자\*\*\* · 김정선†

= Abstract =

### A Cross-Cultural Study of Cultural, Psychological Factors on Drinking Behavior Among Koreans, Korean-Chines, and Chinese

Young Sook Park\*\* · Mei Zi Biao\*\*\* · Jung Sun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Yanbian Nerve Psychiatric Hospital\*\*\**  
*Department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In order to advance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social process of individual drinking behavior, this cross-cultural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drinking behaviors among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June, 1994 to April, 1995 both in Korea and Yanbian, China, we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would lead different drinking behavior among Koreans, Korean-Chinese and Chinese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Subjects were 206 Koreans, 211 Korean-Chinese and 204 Chinese, total 621 subjects.

The results are :

- 1) The average amount of alcohol consumption and of blood level is highest in Koreans.
- 2) In terms of drinking motivation, the effect of blind drunkenness and group solidarity factors are higher for Koreans than others, whereas business purpose and controlling drinking behavior are higher among Korean-Chinese and Chinese.
- 3)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ocial motivation, while emotional motivation is higher among Chinese for the individual motivation.
- 4) Age and emotional motivation a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total amount of alcohol intake and the drinking frequency among Koreans. Group solidarity and blind drunkenness also tend to lead the frequent drinking event for them. The factors of blind drunkenness and group solidarity also has causal effects on the frequencies of drinking for Korean-Chinese in Yanbian, while higher emotional motivation as a psychological factors tends to lead a more frequent drinking among Chinese.
- 5)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drinking behaviors due to the social and

\*본 연구는 1994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cultural differences among Korean-Chinese and Chinese especially in the frequencies of drinking rather than the total amount of alcohol intake.

**KEY WORDS** : Drinking behavior · Cross-cultural study · Cultural factors · Psychological factors · Korea · China.

## 서 론

알콜은 중추신경억제제로서 가벼운 수준의 음주는 언어, 사고 및 운동 기능을 촉진시켜주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기 기억, 정보전달수준, 문제해결능력 등 인지적 기능수행과 운동협응력의 신경심리적 기능수행을 저하시키는 단기적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만성적인 음주는 알콜의존 및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초래한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콜은 일시적으로 정서억제를 이완시켜주고 불안과 공포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로 인하여 일반인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알콜의 효과는 약리학적 작용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는 음주자의 알콜에 대한 심리적 기대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sup>2)</sup>. 음주자들은 알콜이 개인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주고, 유쾌한 정서를 자극해주고, 공격성을 높여주고, 불안을 완화시켜주며, 나아가서 성적 기능을 강화해준다고 기대하고, 이러한 음주자의 기대는 알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행동은 사회의 가치관, 태도, 규범에 따라 사회화되고, 심리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sup>3,4)</sup>. 이와같이 음주행동은 생물학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음주행동이나 만성적인 음주, 즉 주정중독은 생물-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5)</sup>.

한국인은 음주 소모량이나 주정중독 발생에 있어서 소비에트 공화국,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아일랜드처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sup>16)</sup>. 한국인은 알콜에 대한 신체적 홍조반응(Oriental flush)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자의 77% 이상이 술을 마시며, 성인 남자의 연간 알콜 소모량은 18.4 리터이고, 주정중독의 평생 유병율은 25.63%로서 일반 성인 남자의 연간 알콜소모량이나 주정중독 발생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인과 동일한 신체적 홍조반응을 보이는 중국인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주정중

독 발생율을 보인다. 알콜에 대한 홍조반응은 주정중독에 대해 보호적 역할을 한다고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7)</sup> 동일인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현저한 주정중독 발생률의 차이는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sup>9)10)11)12)</sup>. 또한 한국인의 경우 주정중독의 남녀 비율이 28대 1로서 남성의 주정중독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sup>6)</sup>.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남성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술이 한 문화권에서 이용되고 조절되는 양상은 음주행동의 사회화, 음주나 만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및 통제, 음주 습관 등 음주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마을의 축제나 가족의 경조사 등 집단 의식에서 만취하는 음주 습관이 있으며,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의 경우, 술은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사교적 음주에 대한 압력이 있으며, 농민이나 근로자들의 경우는 술을 힘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음주 및 만취 행동에 대한 태도가 관용적이며, 주정중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0)</sup>. 일반적으로도 한국인의 경우 개인적 동기 보다 사회적 동기에 따라 술을 마시며 술을 권하는, 술을 강요하는 사회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조직적 특성,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 사회정치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한국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이와같이 음주와 관련되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요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문화적 조건이 한국인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인에 비해 음주 및 주정중독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중국인에 있어서 음주 소모량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밝혀진 바 있는데<sup>13)</sup> 이 연구 결과는 문화적 요인이 음주억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연구는 한국인 정상성인에 있어서 음주에 영향을 미

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비교문화적 접근방식에 따라 밝혀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음주나 주정중독에는 생물학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주정중독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음주행동에는 생물학적 요인 보다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이 보다 주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타문화권과의 비교문화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그 차별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연구는 한국 고유의 문화권에서 성장한 서울의 한국인, 중국문화권에서 성장한 연변의 조선족 및 漢族을 비교함으로써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한국인의 문화적, 심리적 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본연구는 서울 및 중국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1994년 6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진행되었고, 조사대상자는 한국 정상성인 206명, 중국조선족 정상성인 211명, 중국漢族 정상성인 204명, 전체 621명이었다. 조사대상자에 주정중독환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정중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주정중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 경험을 기준으로 주정중독에 해당하는 피검사자는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제한은 없었지만 남자로만 제한하였다.

본연구에서의 문화적 음주요인이라한 일반인들이 평소 술을 마실 때 흔히 보이는 음주 행동 및 음주 습관, 일반인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등 비교적 광범위한 음주 관행을 음주문화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음주나 만취에 대한 태도 및 허용도, 직장이나 가족내에서의 음주 습관 및 관행 등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음주문화로 포함시켰다. 문항 작성은 예비질문단계, 예비문항 분석 및 요인 분석 단계를 거쳐서 완료되었다. 본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은 개인적인 음주 동기라고 정의하였다. 즉 개인적으로

왜 술을 마시는지, 술을 마시는 동기는 무엇인지를 개인적 심리적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이 문항들 역시 문화적 요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항이 분석되고 선정되었다. 정상성인들의 음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술의 도수와 일회 술마신 총량으로 계산되는 알콜의 체내 흡수량 및 일주일 술 마신 빈도를 사용하였다.

본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처음에 한국어로 제작되었고 중국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공동연구자 및 연구보조자 3인, 중국어교수 1인이 참여하여 중국어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본연구 조사대상자 집단간 평균 연령을 보면 한국인, 조선족, 중국한족이 각각 평균 연령이 34.07세, 33.02세, 33.02세로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한국인, 조선족, 중국한족에서 기혼이 각각 46.6%, 66.4%, 67.2%였고 집단간 차이는 한국인에서 기혼 비율이 낮았다( $\chi^2=30.645, p<.001$ ).

한국인, 조선족, 한족의 정상성인이 평균적으로 마시는 술의 도수를 보면 각각 16.7도, 16.15도, 15.74도였고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43, n.s.$ ). 각 집단에서 한번 술을 마실 때 평균적으로 마시는 술의 총량이 제시되고 있다(Table 1).

한국 정상성인은 일회 술의 총량이 799cc로서 한족, 조선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은 일회 체내 흡수된 알콜의 총량이 제시되고 있다(Table 2).

한번 술을 마실 때 체내 흡수되는 알콜 량(gr)을 하루 마신 술의 총량 cc×술의 알콜 함량 %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45도(알콜 함량 22.5%, 즉 0.225gr)을 360cc 마셨다면 체내 흡수된 알콜 량은 81gr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계산된 일회 체내에 흡수되는 평균 알콜 량을 집단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이 한족과 조선족에 비해 일회 알콜 체내 흡수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1.** Total drinking amount per one day

unit : cc

Group	Mean	SD	F	Schéffe test
Koreans	799.01	1014.42	21.9795***	Korean > Chinese, Korean-Chines
Korean-Chines	376.01	572.71		
Chines	379.29	287.53		

**Table 2.** The total amount of alcohol intake

unit : gram

Group	Mean	SD	F	Schéffe test
Koreans	83.05	67.66	38.7693***	Korean > Chinese, Korean-Chines
Korean-Chines	37.18	31.77		
Chines	51.19	46.80		

\*Blood level alcohol amount(gram)=total drinking amount cc×alcohol percentage

**Table 3.** Drinking frequency per a month

Group	Mean	SD	F	Schéffe test
Koreans	7.86	6.39	3.8998*	Chinese, Korean-Chines > Korean
Korean-Chines	8.41	7.18		
Chines	9.85	7.16		

**Table 4-1.** Factor analyses on drinking behaviors of Koreans

Item no.	factor 1	factor 2
6	.53410	
12	.53018	
17	.50101	
14	.49531	
3	.48567	
7	.46891	
16	.42773	
13	.38650	
18	.38559	
9	.35279	
2	.34117	
8	.30887	
4	.29498	
11	.26607	
1	.26311	
5	.14500	
21		.47831
15		.47245
20		.36707
19		.35984
22		.29876
10		.05196

다음은 한달동안 평균적으로 술을 마시는 빈도가 제시되고 있다(Table 3).

한달 술을 마시는 빈도는 중국 한족과 연변 조선족이 한국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일반인들이 평소 술을 마시는 습관이나 음주 행동이 어떠한지에 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가 각 집단별로, 전체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Table 4-1).

Table 4-1에서는 한국 일반인의 음주행동 및 음주습관에 관한 요인분석에서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두개 요인에 포함된 문항 내용을 분석해보면 6, 12, 17, 14, 3, 7, 16, 13, 18, 9, 2, 8, 4, 11, 1, 5번 총 16개 문항이 제1요인으로 묶였다. 문항 내용을 보면 '취할 때까지 마신다'(6번), '자기 앞의 술은 다 마셔야 한다'(17번), '술을 사양

하는 것은 예외에 어긋난다'(3번), '술자리에는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한다'(16번), '2차, 3차까지 간다'(2번), '술자리 잘못은 용서한다'(5번)에서 만취습관이나 폭음습관이 나타나고 있고, '술을 마시지 못하면 술자리에 끼어주지 않는다'(12번),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술을 마신다'(7번), '모이기만 하면 술을 마신다'(8번), '술을 마시면 서로 친해진다'(4번), '모이면 의례 술을 마신다'(1번), '중요한 사람을 모실 때 술을 마신다'(13번), '직장에서 큰 일이 생기면 술을 마신다'(18번)에서는 집단 결속이나 소속을 위한 음주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 외에 '출세하기 위해 술자리를 이용한다'(14번), '술자리에서는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9번), '업무상 이유로 술을 마신다'(11번)에서는 업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이용하는 음주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제1요인은 술을 마시면 절제하지 않고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 술을 마시고, 사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친해지고 집단이 결속되도록 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음주행동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음주행동은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제2요인에서는 '과음하지 않는다'(21번), '자기 주량이상 마시지 않는다'(19번), '주정부리면 술자리에 끼워주지 않는다'(15번), '술을 마실 이유가 있을 때 술을 마신다'(22번) 등에서 음주절제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은 술을 마시면 만취하게 되고 술취한 행동이 허용되며, 집단 결속을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의 음주행동이나 업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관계에서의 음주행동이 모두 무절제한 경향이 있으며, 음주 상황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음주 절제행동이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다음은 조선족들의 음주행동 및 음주습관에 관한 문항

들의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Table 4-2).

Table 4-2에서는 조선족들의 음주행동 및 음주습관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제 1요인으로는 9, 5, 4, 1, 2, 11, 20, 8, 3, 21, 19, 15번 총 12개 문항이 묶였다. 문항 내용을 보면 '술자리에서는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9번), '업무상 이유로 술을 마신다'(11번), '술을 마시다보면 성사되는 일이 많다'(20번)에서 보이는 업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이용하는 음주행동이 나타나고 있고, '술자리 잘못은 용서한다'(5번), '2차, 3차까지 간다'(2번), '술을 사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3번)에서 만취음주행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술을 마시면 서로 친해진다'(4번), '모이면 의례 술을 마신다'(1번), '모이기만 하면 술을 마신다'(8번)에서는 집단 결속을 가져다 주는 음주행동이 드러나고 있으며, '과음하지 않는다'(21번), '자기 주량이상 마시지 않는다'(19번), '주정부리면 술자리에 끼워주지 않는다'(15번)에서는 음주절제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이 업무 성취 수단으로의 음주행동, 만취 음주행동, 집단결속 음주행동 및 음주절제행동이 제 1요인에 함께 묶이게 되는 결과는 조선족의 경우 업무나 사업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집단 결속을 높이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 만취하는 습관이 있지만 한편으로 의식적으로는 절제적인 음주행동을 지양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Table 4-2.** Factor analyses on drinking behaviors of Korean-Chines

Item no.	factor 1	factor 2
9	.74693	
5	.56718	
4	.50017	
1	.47791	
2	.44285	
11	.42341	
20	.39137	
8	.37525	
3	.35415	
21	.25656	
19	.14602	
15	.13980	
16		.60003
17		.57241
7		.51944
6		.47555
18		.43816
12		.40263
14		.38981
13		.23573
10		.20255
22		.18660

다. 제 2요인을 보면 '직장에서 큰 일이 생기면 술을 마신다'(18번), '술을 마시지 못하면 술자리에 끼여주지 않는다'(12번), '출세하기 위해 술자리를 이용한다'(14번), '중요한 사람을 모실 때 술을 마신다'(13번), '술을 마실 이유가 있을 때 마신다'(22번), '술주정과 인격은 상관없다'(10번)에서는 문항에 내포된 내용들이 혼합적이어서 요인 명명을 하기가 어렵지만,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음주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정리해보면 조선족의 경우 집단이 결속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와 업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잘 구별되지 않으며, 술을 마실 때 음주 만취 및 음주 절제행동이나 태도가 양가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음주의 수단적 가치를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은 중국 한족들의 음주행동 및 음주습관에 관한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Table 4-3).

Table 4-3에서는 중국 한족의 음주행동 및 음주습관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제 1요인으로는 8, 7, 12, 10, 3, 14, 6, 4, 22, 17, 2, 18, 5번 총 13개 문항이 묶였다. 문항 내용을 보면 '모이기만 하면 술을 마신다'(8번),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술을 마신다'(7번), '술을 마시지 못하면 술자리에 끼여주지 않는다'(12번), '술을 마시면 서로 친해진다'(4번), '직장에서 큰 일이 생기

**Table 4-3.** Factor analyses on drinking behaviors of Chines

Item no.	factor 1	factor 2
8	.68023	
7	.59670	
12	.51980	
10	.51298	
3	.48130	
14	.44358	
6	.42574	
4	.37792	
22	.37106	
17	.36460	
2	.35085	
18	.29828	
5	.19950	
9		.60149
1		.51837
20		.47454
11		.46640
16		.39175
13		.37844
21		.36537
19		.34575
15		.31098

면 술을 마신다'(18번)에서는 집단 결속 음주행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술을 사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3번), '취할 때까지 마신다'(6번), '자기 앞의 술은 다 마셔야 한다'(17번), '술자리 잘못은 용서한다'(5번), '술주정과 인격은 상관없다'(10번)에서는 만취습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요인은 집단결속 및 만취 음주행동으로 명명되었다. 제2요인으로는 '술자리에서는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9번), '모이면 의례 술을 마신다'(1번), '술을 마시다 보면 성사되는 일이 많다'(20번), '업무상 이유로 술을 마신다'(11번)에서는 업무용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행동이 나타나고 있고, '자기 주량 이상 마시지 않는다'(19번), '과음하지 않는다'(21번), '주정부리면 술좌석에 끼워주지 않는다'(15번)에서는 음주절제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제2요인은 업무 목적으로서의 절제된 음주행동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 한족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와 업무 목적으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분리되고 공적인 관계에서의 음주는 엄격하게 절제적

**Table 4-4.** Factor analyses on drinking behaviors of three groups

Item no.	factor 1	factor 2
6	.60007	
17	.53388	
8	.49708	
4	.47787	
7	.47687	
3	.46416	
2	.40714	
18	.39298	
14	.38721	
16	.35541	
12	.35259	
1	.29331	
5	.23642	
10	.14906	
21		.51693
9		.49087
19		.45730
20		.38563
15		.29925
11		.29417
22		.28196
13		.27411

**Table 5-1.** Comparison of drinking behavior factor 1 value among three groups

Group	Mean	SD	F	Schéffe test
Koreans	.26	.75	14.2586***	Koreans > Chinese, Korean-Chines
Korean-Chines	-.18	.93		
Chines	.13	.86		

\*\*\*p < .000

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음은 세 집단을 한데 묶은 전체 집단의 음주행동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Table 4-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집단의 요인구조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전체 집단의 요인구조가 보다 안정성있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단의 음주행동 문항들의 요인분석이 시행되었다.

Table 4-4에서 제1요인에는 6, 17, 8, 4, 7, 3, 2, 18, 14, 16, 12, 1, 5, 10번 총 14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2요인은 21, 9, 19, 20, 15, 11, 22, 13번 총 8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요인 문항들 가운데 6, 17, 3, 2, 16, 5, 10번 문항은 만취음주행동과, 8, 4, 7, 12, 1번 문항은 집단 결속과 관련된 문항들이었고 나머지 18, 14번 문항은 직장내 인간관계와 연관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제1요인은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이라고 명명되었다. 제2요인은 21, 9, 19, 20, 15, 11, 22, 13번 문항이었고 이 가운데 21, 19, 15번 문항은 음주절제행동과, 나머지 9, 20, 11, 22, 13번 문항은 업무 성취를 위한 음주행동과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제2요인은 업무용 및 절제된 음주행동이라고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들의 음주 행동이나 습관 등 전반적인 음주 관행을 다룬 본연구의 음주행동 문항들은 두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고, 각 요인은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 업무용 및 절제된 음주행동으로 명명되었다.

다음은 이 두 요인 가운데 제1요인-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 요인 값이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Table 5-1).

Table 5-1에서 보면 제1음주행동요인은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인이 조선족과 한족보다 점수가 높았다. 다시 말하자면 만취하는 음주행동과 집단결속 음주행동 점수가 한국인의 경우에 가장 높고 다른 두 집단보다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F=14.2586, p<.000$ ).

다음은 음주행동 요인 가운데 제2요인-업무용 절제 음주행동 요인 값이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Table 5-2.** Comparison of drinking behavior factor 2 value among three groups

Group	Mean	SD	F	Schéffe test
Koreans	-.26	.63	18.2406***	Korean-Chines, Chines > Korean
Korean-Chines	.19	.78		
Chines	.11	.96		

\*\*\*p < .000

**Table 6.** Factor analyses on drinking motivation of three groups

Item no.	factor 1	factor 2
16	.66618	
10	.65894	
14	.64937	
2	.62161	
9	.61558	
6	.60594	
3	.59249	
13	.53066	
5	.50453	
12	.50056	
4	.42109	
8	.30062	
11		.63316
1		.53402
15		.42256
7		.32375

(Table 5-2).

Table 5-2에서 보면 제2음주행동요인은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족과 한족이 한국인 보다 업무용 및 음주절제행동 점수가 높았다( $F=18.2406$ ,  $p < .000$ ). 다시 말하자면 조선족과 중국 한족은 음주 행동이 한국인에 비해 목적적이고 절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이유 및 동기 문항들의 요인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개인적 음주동기는 일반인들의 음주행동과는 다르게 각 집단간 상이한 요인 구조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므로 전체 집단의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6).

Table 6에서 보면 음주 동기는 요인 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제1요인은 16, 10, 14, 2, 9, 6, 13, 5, 12, 4, 8번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1요인에 속하는 문항 내용들을 보면 '불만을 달래려고'(16번), '우울하여'(10번), '걱정거리를 잊기 위해'(14번), '화가 나서'(2번), '차포자기하여'(9번), '기분 내기 위해'(6번), '기분 좋아서'(8번)였고, 나머지는 신체적 증상에 대한 불안으로 술을 마신다는 내용이었다(13번, 5번, 12번, 4번). 따라서 제1요인은 정서적 음주동기로 명명되었다. 제2요인에는 11, 1, 15, 7번 문항들이 속하였고 이 문항 내용을 보면 '사교

목적으로'(11번), '사업상'(1번), '모임에서 모두 마시니까'(15번),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7번)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음주동기가 비교적 사교적이고 사회적으로 위함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므로 제2요인은 사회적응적 음주동기로 명명되었다.

다음은 제1음주동기 요인 값의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Table 7-1).

Table 7-1에서 보면 한족이 한국인과 조선족에 비해 정서적 음주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F=41.56$ ,  $p < .000$ ).

다음은 제2음주동기 요인 값에서의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Table 7-2).

Table 7-2에서 보면 사회적응적 음주동기 요인 값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일회 체내 알콜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Table 8).

Table 8에서 보면 한국인은 나이와 정서적 음주동기-음주동기 1요인이 알콜 체내 흡수량을 유의미하게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음주행동 1요인), 업무용 및 절제된 음주행동(음주행동 2요인), 사회적응적 음주동기(음주동기 2요인)은 체내 알콜 흡수량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조선족과 한족에 있어서는 나이, 음주행동 1, 2요인 음주동기 1, 2요인 모두 체내 알콜 흡수량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다음은 한달 평균 음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Table 9).

Table 9에서 보면 한국인은 나이, 정서적 음주동기(음주동기 1요인)가 한달 평균 음주 빈도를 유의하게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음주행동 1요인)은 유의미한 예언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언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p < .60$ ). 그 외 업무용 및 절제된 음주행동(음주행동 2요인), 사회적

**Table 7-1.** Comparison of drinking motivation factor 1 value among three groups

Group	Mean	SD	F	Schéffe test
Koreans	-.01	.74	41.5694***	Chines > Korean, Korean-Chines
Korean-Chines	-.38	.83		
Chines	.45	.99		

\*\*p &lt; .000

**Table 7-2.** Comparison of drinking motivation factor 2 value among three groups

Group	Mean	SD	F	Schéffe test
Koreans	-.10	.54	2.4725	n.s.
Korean-Chines	.04	.69		
Chines	.06	1.03		

음적 음주동기(음주동기 2요인)은 음주 빈도에 대해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조선족에 있어서는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음주행동 1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언변인이었다. 한족의 경우 정서적 음주동기(음주동기 1요인)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 고 찰

본연구에서는 집단간 음주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한국인과 연변 조선족, 중국 한족의 정상성인들은 평균적으로 마시는 술의 도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한번 술을 마실 때 평균적으로 마시는 술의 총량

은 한국인이 높았고, 일회 알콜 체내 흡수량도 높았다. 그러나 한달 평균 음주 빈도는 중국 한족과 연변 조선족이 한국인에 비해 높았다.

다음에는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살펴볼 때 개인적 음주 동기 요인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지만, 일반인들의 음주행동요인, 즉 문화적 요인은 집단간 차이있는 요인구조를 보임으로써 문화집단간 음주행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집단간 음주행동의 차이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문화집단간 음주행동의 차이를 보면 한국인들은 술을 마실 때 만취하는 경향이 있고 만취 행동을 허용해주며, 개인적 관계의 음주행동이나 업무 목적의 공적인 관계에서의 음주행동이 모두 무절제한 경향이 있으며 집단 결속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술을 마시는 상황에 관계없이 음주 절제행동이 전반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족들은 집단이 결속되기 위해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total amount of alcohol intake

	Factors	R <sup>2</sup>	B	Beta	P
Koreans		.22			
	Age		- 2.07	-.34	.0001
	Drinking behavior 1		4.28	.04	.5898
	Drinking behavior 2		- 3.45	-.03	.6809
	Drinking motivation 1		32.49	.34	.0001
			- 1.57	-.01	.8781
Korean-Chinese		.02			
	Age		- .27	-.10	.1958
	Drinking behavior 1		3.08	.09	.3086
	Drinking behavior 2		2.03	.05	.5711
	Drinking motivation 1		1.48	.03	.6468
			- 4.36	-.09	.2799
Chinese		.13			
	Age		.13	.04	.7310
	Drinking behavior 1		1.18	.02	.8672
	Drinking behavior 2		12.55	.23	.0584
	Drinking motivation 1		10.48	.22	.0683
			.78	.01	.8793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drinking frequency per a month

	Factors	R <sup>2</sup>	B	Beta	P
Koreans		.12			
	Age		.13	.22	.0060
	Drinking behavior 1		1.36	.15	.0603
	Drinking behavior 2		.05	.00	.9487
	Drinking motivation 1		2.00	.22	.0079
	Drinking motivation 2		-.96	-.08	.3249
Korean-Chinese		.08			
	Age		.08	.14	.0707
	Drinking behavior 1		1.48	.19	.0280
	Drinking behavior 2		.78	.08	.3254
	Drinking motivation 1		-.70	-.07	.3298
	Drinking motivation 2		-1.28	-.12	.1512
Chinese		.25			
	Age		.02	.04	.7103
	Drinking behavior 1		1.69	.18	.1272
	Drinking behavior 2		.40	.04	.6932
	Drinking motivation 1		2.50	.33	.0055
	Drinking motivation 1		.77	.10	.3441

술을 마시는 경우와 업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잘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술을 마실 때 만취 행동이나 절제행동이 양가적으로 존재하며 음주의 수단적 가치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주요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중국 한족은 개인적 관계에서 친해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와 업무 목적으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분리되어 있고 공적인 관계에서의 음주는 엄격하게 절제적임을 시사해준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인은 만취 행동과 집단결속 음주행동이 다른 집단보다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조선족과 한족은 목적적이고 절제되어 있는 음주행동이 일반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연변조선족, 중국 한족 세 집단간 음주행동의 절제나 만취, 음주행동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술을 마시면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고, 집단 결속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며 직장내 관계에서도 이러한 점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중국인의 경우 개인적, 공적 음주 상황이 구별되고 특히 공적 음주일 경우 매우 엄격한 음주 절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변 조선족의 경우는 음주 절제와 만취행동이 양가적이었었다.

한편 개인적 음주 동기는 정서적 동기와 사회적응적 음

주동기로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한족에서 정서적 음주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응적 음주동기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내 알콜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한국인의 경우 나이와 정서적 음주동기였다. 다시 말하자면 나이가 젊을수록, 정서적 동기가 높을수록, 체내 알콜 흡수량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한달 술 마시는 빈도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경우 나이, 정서적 음주동기가 높을수록 음주 빈도가 높았고,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 역시 음주 빈도를 높이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족은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에 따라 음주 빈도가 높아지므로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은 음주 량보다는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문화적 요인이었었다. 이에 반해 한족은 정서적 음주동기가 음주 빈도를 높이는 심리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 량에는 집단 특유의 음주행동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개인적 정서적 동기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국 한족의 경우 일반인의 음주행동은 비교적 절제적이지만 개인적 동기에 따라 음주 빈도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집단 특유의 음주행동은 음주 빈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연변 조선족의 경우 만취 및 집단 결속 음주행위

가 음주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성이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sup>13)14)</sup>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의 세 아시아인을 비교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술을 마시는 양이 많았고 한국인은 술을 절제하거나 폭음하는 양방적 양상을 보여주었고 음주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집단간 공통적으로 술마시는 친구의 존재 여부였고 한국인의 경우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한다. 한편 중국인은 한국인이나 일본인과는 다르게 술마시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향성이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동양인들의 경우 집단적으로 술을 마시고 특히 술을 마시는 친구의 존재가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 본연구에서 집단 결속 및 만취행동은 한국인에서 가장 강했는데, 한국인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함께 마시면서 서로 친해지거나 집단 결속이 강해지고 만취하는 음주습관을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주변 술 친구가 중요한 점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에 비해 중국인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만취를 허용하지 않고 술을 마실 때 특히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만취를 막는다는 보고된 연구도 있었다<sup>15)</sup>.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 한족들의 절제적 음주습관, 특히 공격적 음주행동에서 절제적, 목적적 음주행동을 보이고 있는 본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음주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알콜 효과에 대한 기대감, 주변 사람들의 음주 정도로 보고된 바 있는데<sup>16)</sup>, 이 결과도 한국인들에 있어서 집단적인 음주행동, 집단 결속적 음주행동이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회 평균 음주 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한 점 역시 본연구에서 음주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인의 경우 음주 량에 정서적 음주 동기가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지지해준다고 보여진다.

본연구의 결과에서 연변 조선족은 절제적이고 목적적인 음주행동을 보이는 중국 한족과 만취 및 집단 결속적 음주행동을 보이는 한국인 중간에서 두가지 음주행동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양가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흥미로

운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연변 조선족인 기본적인 심성은 한국인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의 절제된 음주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 두가지 특징을 양가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행동이 효과적으로 절제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스런 태도, 의식과 내적인 태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음주행동에 더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요구된다.

## 결 론

본연구는 한국인 정상성인에 있어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을 밝혀보고자 서울 및 중국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1994년 6월부터 1995년 4월까지 횡문화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한국 정상성인 206명, 중국조선족 정상성인 211명, 중국漢族 정상성인 204명, 전체 621명이었다. 본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목적에 따라 고안된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은 연변 조선족과 중국 한족에 비해 1회 음주 총량이 높았고, 일회 알콜 체내 흡수 량에서도 높았다.

2) 일반인들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한국인은 만취행동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이 조선족과 한족에 비해 높았다. 이에 비해 조선족과 한족은 업무용 음주와 음주절제행동이 한국인에 비해 높았다.

3) 개인적 음주동기는 한족에서 정서적 음주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응적 음주동기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체내 알콜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인의 경우 나이와 정서적 음주동기였다. 한달 평균 음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국인의 경우 나이와 정서적 음주동기였고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조선족은 만취 및 집단결속 음주행동이 높을수록 음주 빈도가 높았고, 한족은 정서적 음주동기가 음주 빈도를 높이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과 조선족, 중국 한족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인들의 음주행동, 즉 집단 특유의 음주문화는 음주 량보다는 음주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References

- 1) Hales RE, Yudofsky SC, Talbott JA : *Textbook of Psychiatry(2nd)*.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1994:355-360
- 2) Abraham BB, Niaura RS :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 Guilford press. 1987:31-178 In Blane HT, Leonard KE(eds) :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 3) Williams RM, Goldman MS, Williams DL : *Expectancy and pharmacological effects of human cognitive and motor performance*. *J Abnormal Psychology* 1981 : 30 : 3 : 267-270
- 4) 장환일 : 음주와 정신건강. *정신건강* 1986:4 : 20-32
- 5) Kissin B, Platz SW :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treatment of chronic alcoholism*. *J Psychiat Res* 1970:8 : 13-27
- 6) 이정균 : 한국 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X) - 알코올중독의 유병율. *서울의대정신의학* 1988:13 : 15-26
- 7) Singh S, Fritze G, Fang B, Harads S, Paik YK, Eckey R : *Inheritance of mitochondrial aldehyde dehydrogenase*. *Human Genet* 1989:83 : 119-121
- 8) Miller NS, Goodwin DW, Jones FC, Gabrielli WF, Pardo MP : *Antihistamine blockade of alcohol-induced flushing in Orientals*. *J Studies on Alcohol* 1988:49 : 1 : 16-20
- 9) 김광일 : *Alcoholic disorder in Korea*. *정신건강연구* 1990:9 : 131-147
- 10) 김진국 : 현대한국인의 음주양상. *정신건강연구* 1985:4 : 9-19
- 11) 권정화 : 알콜리즘 제 1 형과 제 2 형의 비교연구. *정신의학* 1993:18-4 : 200-219
- 12) 유태중 : 한국전통문화에서 본 음주에 대한 태도 및 관습. *정신건강* 1985:4 : 1-8
- 13) Akutsu PD, Stanley Sue, Nolan WS : *Ethnic differences in alcohol consumption among Asian and Caucasians in the United States*. *J Studies on Alcohol* 1989:50 : 3 : 261-267
- 14) CHI I, James DW, Lubben E, Harry HL, Kitano H : *Differences in drinking behavior among three Asian-American groups*. *J Studies on Alcohol* 1989:50 : 1 : 15-23
- 15) CHI I, Harry HL, James E, Lubben MPH : *Male Chinese drinking behavior in Los Angeles*. *J Studies on Alcohol* 1988:49 : 1 : 21-25
- 16) 이민규 :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임상심리학회* 1990:9 : 1 : 135-159